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2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2년 9월 4일 (제1165호)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2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봉우 컬럼

남의 앞길을 막지 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다. 가장 믿었던 제자가 예수님이 가장 힘들 때 그의 목전에서 저주까지 하며 관계를 부인했다. 용서할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 후에 배신자 베드로를 먼저 찾아 오셨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 묻고 다시 길을 열어주셨다. “내 양을 치고 먹이라.”

우리는 이 장면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 과거의 실수를 빌미 삼아 그 사람의 앞날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앞날을 막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고, 그 여인의 앞날을 열어주셨다.

사도행전 9장에 예수의 도를 좇는 사람들을 잡으려 예루살렘으로 가던 사울의 이야기 나온다.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자 잠시 눈을 멀게 하시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손길을 통해 다시 눈을 보게 하신다. 그때 아나니아가 이런 말을 한다. “주님, 이 사람은 과거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 다니던 자인데, 다시 눈을 뜨게 하시면 또 그럴 겁니다. 그런 권세가 그에게 있거든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알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행9:15~16). “왜 네가 그의 길을 막냐?”라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울은 바울이 되어 기쁨으로 사도의 길을 갔다.

계곡 없는 산이 없듯 흙 없는 사람도 없다.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을까? 오히려 그 흙이 그의 삶에 거울이 되어 더 온전한 삶을 살지 않을까? 다윗이 그랬다. 다윗은 충신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 그를 죽인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충고에 깨달은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로 살아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된다. 여섯 남자를 갈아치운 여인도 자신의 과거를 거울삼아 예수의 증인이 되지 않았는가.

남의 과거를 울무 삼지 말자. 그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새 삶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이다.

왜! 개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했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은 성경 전체뿐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에 적용되는 만고의 진리가 아닐 수 없다. 한 개인의 삶부터 나아가 가정, 기업, 교회, 국가 할 것 없이 그 흥망성쇠가 아는 것, 곧 지식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듯,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자유로우며, 그래서 목사님은 목회 초기부터 이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전국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오셨다. “지식이란 아는 것입니다. 아는 자는 지

목사님은 수요일예배 설교를 통해 ‘절대 보증 서지 말 것’을 목이 터져라 외치셨다. 아마 이 설교는 목사님이 많이 하시는 설교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당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많다고 하니 오죽 답답하실까? 골백번을 들어도 그 지식의 가치를 모르는 자는 개돼지와 무어가 다른가. 당하고 나서 남 탓해야 무슨 소용인가? 목사님은 ‘남 탓 말고 네가 문제다’라고 콧 꺾어 말씀하셨다. “개돼지에게는 진주를 쥐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6천 년을 외치시고,

못이 박히도록 설교할 때는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제발 명심하세요. 당장 그 앞에서 내치기 어렵거들랑 ‘생각해봅시다, 기도해봅시다’ 하며 여유를 갖고 대처하세요. 또한 명의를 빌려주는 것도 절대 안 됩니다. 명의를 도용(盜用)하여 사기치는 범죄가 기승이랍니다.

물론 책임질 수 있으면 하세요. 아예 준다 생각하고 하는 거라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절대 해선 안 됩니다. 제발 이 진주 같은 말씀을 개돼지처럼 뱉아버리지 말고 인생의 금과옥조(金



KBS88체육관 주일에배 광경

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만 자유가 있습니다!” 18번처럼 목사님 설교의 서두를 장식하던 말씀이다. 요즘 들어 청년들 세미나에서 더욱 강조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라서,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지옥으로 멸망해간다. 그러나 진주 아니라 아무리 좋은 보석이라도 개돼지에게 주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 가치를 아는 자에게만 그 보석의 가치가 빛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 가치를 아는 자에게만 빛을 발한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가치를 모르면, 뿌리가 썩은 나무에 물을 주면 더 썩듯이, 그의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수께서 2천 년을 외치시고, 내가 38년 목회하며 외쳐대는데도 정말 소귀에 경 읽기입니다. ‘내가 보증 서지 말라, 보증 서지 말라’ 외친 게 38년입니다. 이게 어디 내 말입니까?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리라’(잠11:15),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잠17:18),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이 되지 말라’(잠22:26).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절대 빚보증 서지 말라고 신신당부해온 것입니다. 인정, 사정, 동정에, 사나이가 어찌고 하며 감정적으로 결정했다가 눈물로 하소연하는 사람을 한 둘 본 게 아닙니다. 자신이 저질러놓고 나한테 외쳐야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귀에

科玉條)로 삼아 한 사람도 울무에 빠져 울며 고통당하는 자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이미 그 울무에 빠져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괜히 남 탓하다 더 큰 고통 당하지 말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겸손히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새나 노루가 사냥꾼의 그물에서 벗어나듯이 스스로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잠6:1~5).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약1:5). 만사를 변화시킬 힘은 오직 기도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문제의 해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한은택 목사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강서구 화곡동) 문의: 02-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요15:14~15)



왜 속수무책으로 당하느냐? Let's go back to the Bible!

제가 직접 찾아와 상담하거나 전화로 상담하는 내용의 90%는 병들었다고, 아프다고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제 속은 답답할 뿐입니다. 왜냐고요? 해결책이 있는데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쳤는데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게 속상해서 그렇습니다. “당하다니요? 누구에게요?”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하는 놈이 있습니다. 바로 마귀의 추종자, 귀신입니다. 성경을 보면 귀신의 작태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쫓아내는 법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Let's go back to the Bible!”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성경에 답이 다 있습니다. 성경에 해법이 다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여인이 낳은 자 중 가장 큰 자라 하는 세례 요한에게조차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르쳐주셨습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이제 종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예수의 친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요 15:14~15). 단,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자 하나님을 그를 ‘나의 친구’라고 하신 것처럼(약2:23). 그리고 그에게 숨기는 것이 없다고 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창18:17). 맞습니다. 정말 친한 친구에게는 비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모든 비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답안지를 넘겨준 셈이지요. 해답지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답안지를 보고도, 해답지를 가지고도 문제를 못 풀어요. 왜냐? ‘설마 이게 답이겠어? 더 좋은 답이 있을 거야.’, ‘너무 쉽잖아? 이렇게 단순할 리가 없어.’ 그러면서 답안지를 무시하기 때문에 문제를 못 푸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만 달랑 던져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셔서 몸소 이를 실행하심으로 시각적인 교육까지 시범을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란다.’ 하시며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보지 않으면 믿지 않기 때문이죠(요4:48).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잘 보라.

요즘 너희들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그거 다 열병이야. 귀신이 그러는 거야. 그러니 먼저 귀신을 쫓아라. 그러면 나간단다.” 하시며 우리에게 마태복음 8장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데 그에게 손을 얹고 귀신을 쫓으니 열병이 떠나간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또 “못 보게 하는 것도 귀신이야. 그러니 귀신을 쫓으면 소경이 눈을 뜨게 된단다.” 하시며, 마가복음 8장 22절 이하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소경의 눈에 침을 뱉으며 안수하자 소경이 눈을 뜨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귀먹고 말 못하는 자에게는 ‘에바다’



총회장 이초석 목사

다 ‘에바다’ 하시며 손을 입에 넣으시니 그가 귀도 뚫리고 말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예수님과 똑같이 합니다. 소경의 눈에 침을 발라 눈을 뜨게 합니다. 입에 손을 넣고 ‘에바다’ 합니다. 그러면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병어리가 입을 엽니다. 그런데 이를 보는 사람들은 ‘비위생적’이라고 하지요. 그게 문제입니다. 당신의 상식과 편견과 알량한 세상적 지식이란 잣대로 채니 당신에게 이 복음은 쓸모없고, 소용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위생 관념이 없어서 그리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말씀하신 줄 압니까?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마8:9)라는 이 말 때 문입니다. 그는 믿음이 뭔지, 순종이 뭔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아, 가라.’ 하시면 귀신도 그 말씀에 따른다는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예수님의 말씀 아래 복종한다는 사

실을 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당신이 가진 문화적인 지식은 하나님과의 견고한 진이 될 뿐입니다. 그것을 파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고후10:4~5). 그러니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내 지식, 내 상식을 배설물로 생각하고 버리세요.

또 예수님은 이렇게 자상하십니다. “애들아, 한번

에 귀신이 안 나가거들랑 나가 때까지 안수하고 귀신을 쫓아라.”

고 하시며, 안수받은 소경의 눈이 아직 희미할 때 다시 안수하는 것까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막8:22~25). 왜? 친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안지를 주시고, 또 시범도 보여주셨는데 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까? 왜 속수무책으로 귀신에게 당해서 병들고, 가난하고,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그제 하나님 뜻이라고요?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병들기를 원하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이 가난하고 고통받기를 원하겠습니까? 저도 여러분이 병들어 아프고, 가난하여 눈물 흘리는 것을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가 구원받고, 건강하고, 잘 사는 길을 여셨는데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 곧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66권의 성경 중에서도 특히 예수님이 뭐

라고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찌하셨는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의 2/3를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행1:8). 권능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찌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막16:17~18),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성령이 오심은 이 세상의 주관자 마귀와 그의 추종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즉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됩니다. 한 번만 쫓으면 되냐고요? 아닙니다. 이 귀신이란 놈은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쫓아옵니다. 홍해 앞까지 애굽군대가 쫓아온 것처럼 말입니다. 그놈은 우는 사자처럼 늘 우리를 삼키려 하는데, 어찌나 많은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쫓아야 합니다. 잠시 방심하면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와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눅11:26). 이걸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발 성경을 상고하세요. 성경이 인생의 해답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러면 만사형통입니다. ‘누가 이러더라, 누가 저러더라’, 여기에 현혹되고, 미혹되지 말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에 주목하세요. 쉬지 않고 기도하면 성령충만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요14:12).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병에 걸렸습니까? 무조건 먼저 귀신을 쫓으세요. 일이 잘 안되니까? 예수님이 풍랑을 꾸짖으신 것처럼 꾸짖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듯이 동일하게 귀신을 쫓으세요.

무기를 줬는데도 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면 그건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란 총으로 귀신을 쏘세요. 100%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무병미락장수하다 천국에 갑시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엡6:17~18). 할렐루야!

:: 객원컬럼 ::

:: 교단소식 ::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유아 · 유치부 성경캠프

일반적으로 인간은 많은 돈을 소유하려고 한다. 풍족하게 잘 먹고 잘 입고 안락하게 잠자며 문화를 즐기며 살려 한다. 그리고 권력을 갖기 원한다. 지배받고 살기보다 남을 다스리며 살고 싶어한다. 거기에 명예를 갈망한다. 돈과 권력에 명예를 더하려고 한다. 명예는 돈이나 권력에 비해 그 생명이 길기 때문에 잡다운 명예를 통해 인생의 보람을 찾으려고 한다.

이렇게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돈과 권력과 명예를 얻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수고한다. 남보다 월등한 것을 얻고 성취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에 자신을 투자한다. 이것들은 모두 이 세상에 속한 소망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그 차원이 다르다. 돈이나 권력, 명예보다 더 높고 크고 영원한 차원의 것을 소망한다. 즉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요10:17)고 말씀하셨다. 돈과 권력과 세상의 명예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위해서만 목숨을 버리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여 다시 영원한 목숨을 얻으셨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나아갈 길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과 전혀 다르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돈을 위해 자기 몸 에 무리가 생기는 것도 모르고 발버둥 치다가 병들고 쓰러져 죽는다. 또한 권력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결국 목숨을 헌신

짝같이 버린다. 돈과 권력과 명예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 돈과 권력과 명예를 위해 목숨을 버리지 않는다. 오직 목숨을 위해서만 목숨을 버린다. 즉 생명을 위해서만 생명을 버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사람이다. 예수께서 천하의 어떤 것보다도 목숨을 중히 여기고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그 목숨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 돈이나 권력, 그리고 명예마저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다. 세상의 친구나 즐거움도 버려야 한다면 기꺼이 버리는 사람이다. 생명을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자신의 영혼과의 관계를 갖기 전에 눈에 보이는 부유만을 추구한다. 이 땅에서의 안락한 삶을 구한다. 그들의 관심은 근본적으로 영원한 생명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수 믿지 않으면 영혼이 장차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리라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 믿는 목적을 알아야 한다. 예수 믿는 목적은 오직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함에 있다. 이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이 땅에서의 삶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요일5:21).

신기류 목사

열등감은 스스로를 깎아내린다

주께 맡기라

주변에서 좀 잘 되거나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꼭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 “개는 금수저잖아! 태생부터가 달라!”

그런데 그가 잘 되는 이유가 부모를 잘 만나서거나 집이 좀 살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을 향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물이라면? 그렇다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남과 비교하면서 열등감과 피해의식,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남을 판단하고 폄하하려는 경향이 있다. 자기 눈 속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의 티를 보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그런 사람들 모두가 잘 되는 것이 아니다. 재벌 2세라고 다 유능한 CEO가 아니고, 부모님이 학자라고 자식이 다 똑똑하지 않고, 목사, 장로, 권사의 자녀라고 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출발점은 남들과 다를지 인정 과정과 결과는 결국 그들의 몫이다. 베드로와 바울은 태생부터 달랐지만 둘 다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 베드로가 바울의 혈통과 가문과 학벌에 열등감을 느꼈을까? 오히려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를 위해 온전히 자신의 일생을 드렸다. 베드로와 바울의 공통된 성공 비결은 스펙이 아니라 순종이었다.

사울이 스스로 멸망한 이유가 무엇인가? 소년 다윗에 대한 열등감 때문이다.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사람들은 다윗을 추앙하면서 사울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때 사울이 통 큰 자가 되어 젊고 유능하고 신실한 다윗과 한마음으로 의기투합했다면 역사는 분명 달라졌을 것이다.

목사님이 원래부터 전도유망한 사업가였고 돈이 많았기 때문에 목회에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부귀영화를 뒤로하고 본토와 처자와 자존심까지 다 버리며 복음을 전하러 다니신 세월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또한 산기도와 철야기도, 금식기도를 밥 먹듯이 하여 허리에 복대를 차고 다니시면서까지 하나님께 간구하여 받은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에 이르신 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열등감에 사로잡힌 말과 생각은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릴 뿐이다. 남이 잘될 땐 그의 수고와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함께 기뻐하자.

신혁주 전도사

3년 만의 여름성경학교!
코로나 기간동안 어른도 힘들 영상예배를 각자 드리느라 어린 것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모두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 그러나 주의 일을 시작하면 약한 것도 역사하는 법, 이번에 많이 내린 비로 침수 피해를 입은 선생님부터 코로나에 걸린 가정, 각자의 어려운 일들이 각 선생님과 유치부 내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
그렇게 시작된 유아 · 유치부 성경 캠프. 역시나 하나님의 이끄심은 상상을 초월했다. 아이들에게 간식과 저녁을 준비해주신 교육부 자모회부터, 봉사자로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 아이들이

충분히 쉬고,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을 내준 각 교육부서. 성령세례 시간에는 이 시대 목사님뿐만 아니라 부목사님들도 함께 오셔서 아이들 한 명, 한 명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심으로 은혜가 넘치고 풍성한 시간이었다. 성경 말씀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어린이성경캠프였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여러분처럼 될 거야. 여러분처럼 목회자가 되고, 청년들이 되어서 교회를 이끄는 영혼들이 될 거야! 고맙다!” 이시대 목사님께서 모든 봉사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처럼, 교단 내에 가장 작은 영혼들이지만, 그들의 미래가 장차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삭 전도사



:: 생명의 말씀 ::

“3기 아니면 말기입니다”. 첫 암 검사 결과를 알려주던 의사의 말에도, 이후 두 번의 수술과 8번의 항암치료에도 그저 아무 걱정 없이 무심히 지냈다. 지금? 모든 게 정상이다.

나는 소심하고 좋게 말하면 세심하다.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없는 사람이다. 민감하고 겁도 많다. 그런데 어떻게 무심히 지냈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설명될 수 없다. 다니엘이 사자 굴에 떨어질 때, 세 친구가 뜨겁게 타오르는 풀무 불에 던져졌을 때 어땠을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두려움 없이 초연하지 않았을까? 그 초연함은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됐다. 진단 전에도 꿈으로 보여주시고, 수술과 항암치료 중에도 참으로 은혜스러운 미래를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었다. 본신 인간의 연약함과 미움함은 제아무리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벗어날 수 없는 일이다.

믿음의 궁극은 의탁이다. 엄마의 품에서 아무 생각 없이 평안한 상태가 진정한 의탁이다. 견지 못하고 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고개만 돌리면 따뜻한 엄마의 젖이 있는데 무슨 걱정 있

으랴. 그저 울기만 하면 모든 것이 준비되는데 무슨 걱정 있으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온전히 내가 엄마 품에 의탁하여 평안함을 누림과 같이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쉴 것을 이르심이다.

내려놓을 수 있는가? 주님 안에서 평안한가? 돌이켜보자. 작은 일에도 안달하며 조급해하고 불안과 원망에 힘들어하는지 돌이켜보자.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고 잠시 인생사 초연해보자. 똑똑한 척 매사 고민하며 해결책을 마련하려 하지 말고 주님께 먼저 의뢰하고 기다려 보자. 그러면 평강이, 인도하심이 함께하며 아무 해결책이 없는 가운데 나는 무력하게 있을 수밖에 없을지라도 상상할 수 없던 기적이 당신 앞에 일어날 것이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 두려움을 넘어서는 요체는 ‘먼저 기도하기’이다. 주님은 말씀하신다. “네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시37:5~6).

이광주 목사

:: 간증 ::

:: 빛이 되리라::

배움의 끝은 실천이다



저는 태안사랑예수중심교회를 섬기고 있는 국승봉 목사입니다
1981년 중학교 2학년 때에 처음 장로교회에 나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2002년 12월, 당시 경찰관이던 저는 광주예수중심교회로 옮겨 신앙생활을 했으나 성령을 받지 못한 연고로 주일만 예배드리고 나가서는 날마다 술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온갖 죄를 짓고 다니는 썩데이 크리스천의 삶을 사는 자였습니다.
그러던 2003년 2월 14일 주일, 어느 때 처럼 예배를 드리는데, 본부에서 전교회가 위성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아르헨티나 마르델플라타 2차 전도집회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성가대석에서 위 성영상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제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더러운 죄인이고, 이 더러운 죄인을 용서해달라는 회개가 터져나오며 통곡과 함께 눈물, 콧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인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순간부터 완전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날부터 술과 담배를 끊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고, 방언을 하며 예수중심교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영상예배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분들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영상예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참 예배라는 것을 말이죠.
이때부터 이초석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배우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호텔 공사에 봉사를 하게 되었으며, 어느덧 5개월여의 시간이 흘러 기도원 호텔 봉헌예배가 다가와 광주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도원 주변을 청소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자 성도님과 함께 경운기에 달려있는 분무기로 물청소를 하게 되었는데, 저더러 경운기의 시동을 걸어달라고 하여 저는 한 번도 경험이 없었지만 시동거는 쇠뿔치를 엔진에 끼워 돌리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쇠뿔치를 엔진에 끼우고 힘주어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운기의 엔진이 서서히 돌기 시작하다 시동이 걸리며 빠르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쇠뿔치를 빼야했는데 경험이 없던 저는 돌고 있는 쇠뿔치를 그대로 둔 채 성도님을 향해 “이제 물을 뿌리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돌고 있던 쇠뿔치가 튀어올라 제 입을 때렸습니다. 눈앞이 번쩍하고 입안에서 펑 하며 새빨간 피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때 신기하게도 다른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이초석 목사님께 예배 때 배운 게 생각이 났습니다. 자동적으로 귀신을 쫓고 제 입에 손을 얹고,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피는 멈출지어다.” 하고 명령하고는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 입을 행구었습니다. 입술에서는 거짓말처럼 피는 멈추었고, 입술 안쪽에는 새끼손톱만

한 구멍이 나있었습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목사님께 배운 대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명령했더니 피가 멈추다니요. 할렐루야!
그런데 피는 멈추었으나 쇠뿔치에 맞은 자리가 너무 아픈 게 아녘니까? 피만 멈추라 했으니 피만 멈추고 통증은 남아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한번 맞본 기적에 다시 손을 얹고,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하고 명령하니 이내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기해 입을 이리저리 만져보는데 쇠뿔치에 맞은 아래 앞니 두 개가 심하게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빨에 손을 대고,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빨은 정상적으로 붙어 있을지어다.” 하고 명령했고 지금까지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하게 음식을 씹어먹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은 평생 제 신앙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초석 목사님께 배운 대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오늘 이 간증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누구나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께 배운 대로 실천하면 됩니다. 아주 작은 거라도, 감기라도, 사소한 그 무엇이랄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명령하세요.
한 번에 안 됩니까? 될 때까지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태안사랑예수중심교회 국승봉 목사

나만의 지도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소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지도만 보면 뭘 해? 남이 만들어 놓은 지도에 네가 가고 싶은 곳이 있을 것 같니?”
“그럼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어디 나와 있는데?”
“넌 너만의 지도를 만들어야지.”
어릴 때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책이었으나 성인이 되어서는 내포된 의미심장한 문구들이 오히려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드는 책이다. 위 문장도 그 말 그대로 남이 만들어 놓은 지도에는 내가 가고 싶은 장소와 길이 없고, 나는 나만의 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많은 사람이 공무원 준비를 한다고 나뭇길 그 공부를 할 필요는 없다. 몸짱이 대세라고 나뭇길 그 그러한 몸을 만들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남들이 다 대학 가니 억지로 의미 없는 공부하며 캠퍼스에서 귀한 시간을 낭비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나에게 맞지도 않는 일터에서 몸과 마음 상하며 밤낮 회사 일에 매진해야 할 필요도 없다.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많은 경우 그냥 쉽사리 발견되진 않는다. 그것을 위해서 별도의 시간을 들이고 많은 애를 써야 한다. 그리고 용기 있게 도전해야 한다. 회사를 나오면 죽을 것 같은 어려움만 도사리고 있을 줄 알았으나 두려움을 이기고 결단하니 더 큰 자유와 기쁨, 그리고 새로운 길이 펼쳐진다. 결국은 두려움과의 싸움, 철저한 준비,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고 믿는 믿음이 있느냐의 문제다. 용기 있게 나만의 지도를 만들고 내 삶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쁜 인생, 목사님 말씀처럼 명작이 되는 인생을 살아보자.

장명훈 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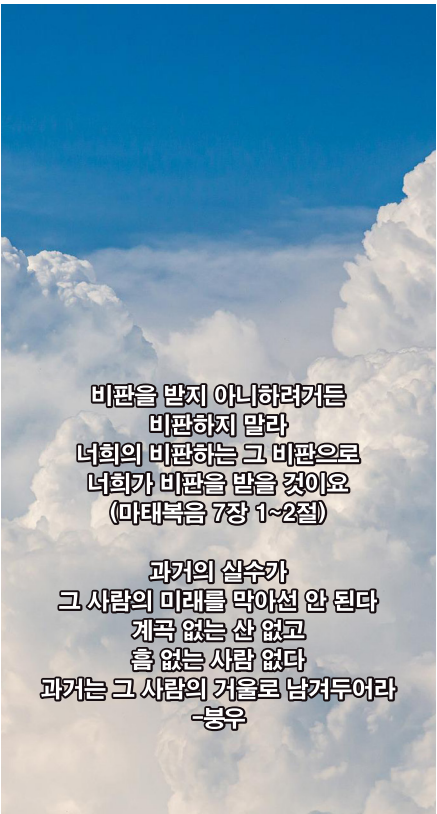
식도염에 도움되는 오죽골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가슴이 타는 듯한 화끈함과 역류 되는 불편감을 경험해본 사람은 역류성 식도염이 얼마나 삶을 불편하게 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맵고 짠 음식, 또는 새콤한 과일을 먹거나 과식, 식후 바로 눕는 습관 등도 원인이 되는 역류성 식도염은 식도와 위 사이에 있는 식도괄약근의 조이는 힘이 약해지면서 위산과 위의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게 되는 증상입니다. 특히 커피나 탄산음료, 기름진 음식, 과식, 야식이 잦은 현대인들에게 발생하기 쉬우며 비만과 스트레스 역시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킵니다.
약물치료가 증상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근본적인 부분까지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에, 생활 습관을 관리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생각 등으로 근

본적인 부분을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는 갑오징어뼈(오죽골)가 있으며, 가루로 낸 것을 하루에 티스푼으로 2~3회 정도 나누어서 물과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오죽골은 천연 제산제이며 지혈 효과도 있습니다. 가까운 한의원에서 찾을 수 있는 오패산은 갑오징어뼈가 들어간 약재들로 구성되어 속이 쓰린 역류성 식도염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마는 끈끈한 뮤신이라는 성분이 위벽 보호기능이 있어서 속쓰림 증상을 완화합니다. 과일로는 바나나와 펠론이 산도가 낮아서 산성화된 위를 중화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며, 감자도 알칼리성 식품이라 산성화된 위를 중화시켜주며 아르기닌 성분은 위산 역류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마늘도 위를 자극하여 소화를 촉진하며,

생강도 따뜻하게 소화기관을 회복시켜 위 운동을 촉진하기도 합니다. 마늘이나 생강이 열이 있는 체질에는 불편한 증상이 있을 수도 있기에, 본인의 체질에 맞는 지 소량씩 복용하고 체크하면서 도움이 되는 경우 복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리가 되지 않는 1시간 전후의 걷기 운동은 소화기능을 향상시키며 가슴에 열(熱)이 물려서 발생하는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완화해줍니다. 가슴 주변의 혈자리인 전중혈 주변에 통증이 있다면 가정용 마사지 도구들을 이용하여 가슴 주변 근육의 통증을 풀어주는 것도 식도염에 도움이 됩니다.
반복적인 긴장과 스트레스를 원활히 해소하고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신앙의 삶도 식도염을 개선하는데 좋은 태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Dr. 설재현 집사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7장 1~2절)

과거의 실수가
그 사람의 미래를 막아선 안 된다
계속 없는 삶 없고
을 없는 사람 없다
과거는 그 사람의 거울로 남겨두어라
-봉우